

방문객센터 행하니 자리만...브랜드 제고도 단발성

숨죽인 '지역 자산' 다시 깨우자

▶1면에서 계속

지오브랜드의 경우 2018년 9월 무등산 인근 지오빌리지 1곳(정풍마을), 마을 인근 식당 등 16곳과 지오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1월 브랜드 '지오푸드(Geofood)'에 무등저장거리동동주, 전통두부, 청국장, 짬뽕오겹살, 황칠백숙, 연잎차, 허브꽃차 등이 가입했다. 파트너 협약에 참여한 상인들은 지오푸드 로고를 적용한 라벨, 간판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떨어지는 브랜드 인지도 탓에 제감도는 크지 않다. 지질공원을 지역 농산물과 연계해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애초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지오프터너 상인 A씨는 "지오브랜드와 협약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홍보에 도움을 받는 듯했지만 실상은 협약 전이나 후의 매출, 관광객 수는 별 차이가 없다"며 "지오푸드 마크를 보여주면 10명 중 9명은 '처음 본다', '무등산 마크냐'는

답변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상인 B씨는 "인증 전 수업이 거의 없더니 매출만 보면 지오프터너 체결 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오푸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거의 없어 손님들이 올 때마다 직접 설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오푸드 브랜드 홍보에 사용된 비용은 9억3,000만원에 달한다.

지오프터너와 지질공원센터, 지질학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도 별반 성과가 없다. 무등산권 지오프터너는 현재 총 6개 구간을 운영 중이다. 광주권역 2개(무등산1 트레일, 무등산2 트레일), 화순권역 2개(공룡·적벽 트레일, 운주사 트레일), 담양권역 2개(추월산 트레일, 담양습지 트레일) 코스로 짜여졌다.

하지만, 각 코스가 등산 위주라면 자연 교육·체험 등을 접목한 다채로운 트레일코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산객 C씨는 "아이와 함께 무등산 권

역을 돌아보기에는 너무 힘든 코스로 짜여 있다"며 "아이들과 교육·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트레일 코스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문객센터 역시 행하니 자리만 지키고 있다. 안내시설을 포함한 방문객센터는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 새로 확보한 3곳을 포함해 현재 총 8곳(광주 5곳, 담양 3곳)이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지질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46명(광주 43명, 화순 1명, 담양 2명)의 지질공원 해설사가 상시 근무하며 해설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지질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찾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실제 지난해 원호사지구 방문객센터의 월별 방문객 현황을 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636명이 다녀가 하루 평균 2.12명에 그쳤다. 중심사지구도 하루 평균 방문객은 13.87명 수준이다. 그나마도 시설 점검과 해설사 휴식기 등이유로 문이 닫힌 센터가 상당수다.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지질공원 해설사 운용·시설물 관리

등에는 모두 14억3,741만원이 쓰였다. 여기에 무등산권역 지자체간 통일된 관리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등산권역은 광주시와 담양·화순군을 아우르고 있지만, 주된 업무는 사실상 광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와 담양·화순군 담당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실무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 주도의 지오빌리지 선정이 단적인 예다. 화순군 은도곡면 효산리 모산 고인돌마을, 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 이서면 아사마을을 지오빌리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화순군 관계자는 "광주시와 담양군 모두 지오빌리지 선정 기준이 다르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크다"며 "현재 전남대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에서 '무등산권역 통합 지오빌리지 선정기준'을 만들기로 협의한 상태며, 이후 기준에 맞게 지오빌리지 선정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 핵심 콘텐츠로 추진한 '동아시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센터' 건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플랫폼센터는 광주 북구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내에 건립될 예정으로,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 관리, 동아시아권 세계지질공원 관계자 교육, 훈련, 교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애초 450억원 규모였던 이 사업은 2019년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단을 받아 보류됐고, 사업비를 327억원(국비 158억원, 시비 169억원)으로 줄여 2020년 6월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실시설계비 16억원을 확보해 현재 설계 공모 단계로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4년만에 갖 걸음마를 댄 실정이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3년이다.

이밖에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활동도 단발성 토론회에 그치고 있고, 홍보 역시 공항·터미널 안내판 설치

등으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허민 의장은 "환경보존과 관광개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며 "국내외 세계지질공원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우수사례를 통해 운영 노하우를 듣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 교육, 토론회,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 화순, 담양 등과 연계해 올해 재인증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4년 주기로 재인증 심사를 거쳐 브랜드 지위 여부를 결정한다. 유네스코는 재인증 심사 중 부적격을 받으면 인증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시정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인증된 무등산권의 인증 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다.



호랑이 그림 그려요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5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만의 호랑이 그리기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크레파스로 형형색색의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5·18기록관, 자료 보존시설 대폭 손질한다

서고 만고율 90% 육박...올해 타당성 용역 추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지속된 기록물 수집으로 포화상태를 앞둔 보존 서고를 대폭 확충한다고 5일 밝혔다.

기록관은 지난 2015년 5월 옛 광주가톨릭센터를 리모델링해 개관해 1~3층을 5·18 상설전시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4층은 특화자료실, 5층은 기록물 보존 서고, 6층은 5·18 연구실, 7층은 다목적 강당으로 쓰고 있다.

보존서고는 5층 전 공간(404㎡)을 사용하고 있으나 89%가 채워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기록물 수집 및 기증으로 추가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록관은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보존서고 증설계획과 함께 예산을 340여억 원을 요청했으며 올해 국

비 2억 원을 확보해 공간과 보존 및 관리 시스템 증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현재 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양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기록물 문서 4,271권 85만 8,904페이지, 흑백 사진 2,017컷, 사진 1,733장을 비롯해 등재 이후 추가로 수집된 기록물 약 2만 5,000여 건이다.

또 5·18 당시 윤상원, 김영철, 박용준 열사 등으로 잘 알려진 '들불야행'의 기념사업회에서 2021년부터 민주화운동 기록물 기증 의사를 밝혀 기증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보존시설 증설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인 5·18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

게 디지털방식과 AR, AI 등 현대적인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5·18의 이해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증설 공간은 5·18 사적지인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통합병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공간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옛 국군통합병원에 증설할 경우 노후된 건물의 보강과 내·외부 시설 보완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번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록관은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2023년부터 세부설계를 시작해 2025년까지 '5·18기록물 보존시설 증설' 및 '기록관 현대화' 안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체 '기록물 보존처리 공간'과 방문객들이 원본 기록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광주시, 야생조류 충돌저감사업 시행

광주시가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조류피해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광역시 최초로 '광주시 조류충돌 저감조례'를 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조류충돌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방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패턴스티커를 부착해 충돌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한다.

다불어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조류충돌 방지 건축물(방음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민원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저감사업 확대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부 조류충돌방지 공모사업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공공건축물, 465㎡)과 광산구 쌍암

힐스테이트리퍼파크(투명방음벽, 1,000㎡) 등 2개소에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에 따르면 편의와 미관을 위해 설치된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충돌사례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조류충돌 피해는 생활 속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조류충돌 피해저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포용교육으로 광주혁신교육 대전환"

이정선 전 총장 신년 기자회견

오는 6일 광주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사진)은 5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을 넘어, 더 큰 포용교육으로 광주교육대전환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2년 광주혁신교육의 공과를 진단하며 "혁신교육, 5·18 역사교

육, 보편복지 확대 등의 성공적인 성과는 이어져야지만 이분법적 평가하기, 실력저하, 미래교육 준비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취업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미래직업사회에 적합한 더 좋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다양성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며 "미래교육이 요구하는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개인교육 실현, 에듀테크 활용과 AI 스마트 스쿨을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 추진,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공간혁신을 통한 교육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불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풍치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PARR 시스템 스크린골프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풍치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PARR 시스템 스크린골프 11실과 부대시설

FUNI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4대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2-3F Screen Golf

1F Fun it, us Cafe & Lounge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화교로 192(차량용) 구, 상무리신촌신축빌딩